

4·11총선 여론조사-전남

무안·신안 한화갑·김홍업 출마면 판도 변화

유선호 호남 불출마 선언... 선거 판세 요동 칠 듯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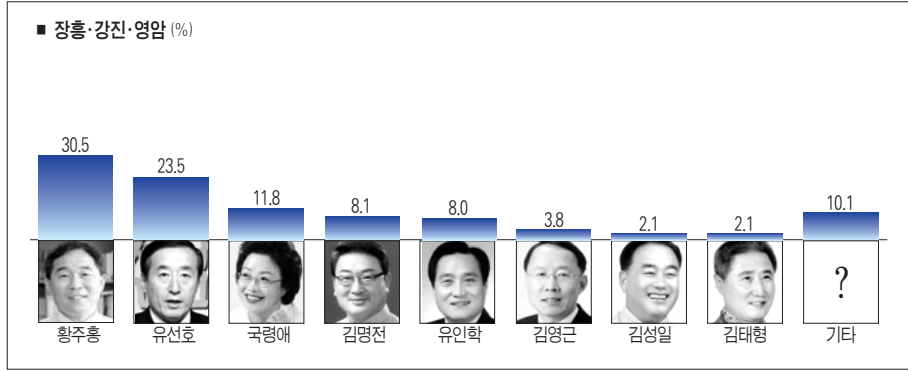
해남출신 후보 박광운·윤재갑·민병록 단일화 주목

장흥·강진·영암

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뚜렷하게 높지 않아 8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.

전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황주홍 전 강진군수가 30.5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인 유선호 후보가 23.5%로 뒤를 이었다.

민주당 원내 경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선두권 후보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. 황 후보는 32.2%, 유선호 후보는



22.1%를 기록했다. 국 후보는 12.2%, 유인학 후보 9.4%, 김명진 후보 8.8%, 김영근 후보는 5.0%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.

하지만, 유선호 의원이 19일 전격적으로 호남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향후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이 지역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황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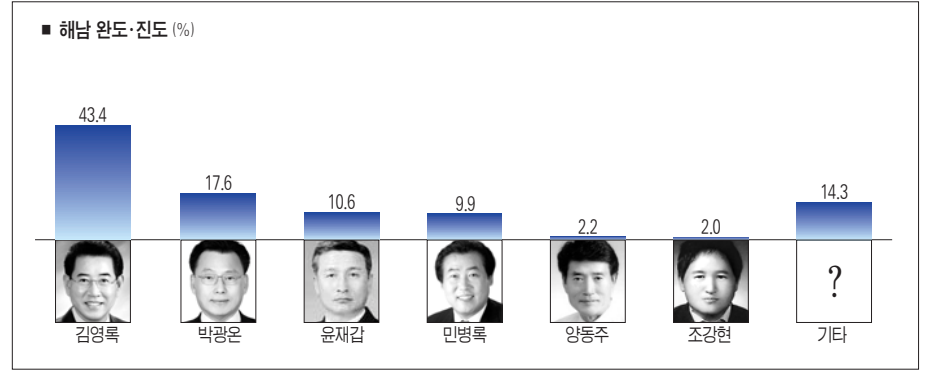


해남·완도·진도

민주당 5명, 한나라당 소속 1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후보 지지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영록 후보가 43.4%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.

민주당 내 경선 지지도에서도 김영록 후보는 45.7%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17.8%를 얻은 박광운 후보가 기록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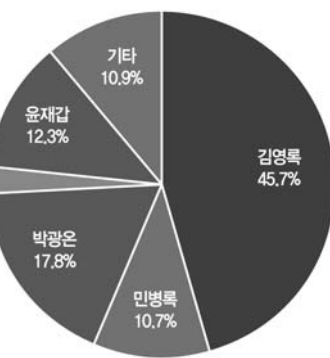
완도 출신인 김 후보는 고향에서 75.3%라는 전폭적 지원을 받은 반면 해남에서는 28.4%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.



해남에서만은 김 후보를 위협했다.

따라서 향후 경선전의 최대 변수는 해남 출신인 박·윤·민 후보 간 단일화 여부. 해남은 지역구에 포함된 3개 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완도 출신 후보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내준 바 있어 군민 사이에는 후보단일화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이윤석 지지율 50%대... 서삼석 전 군수 추격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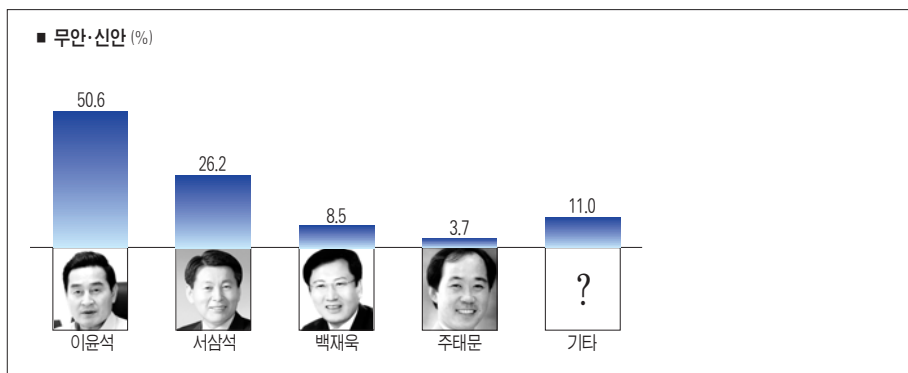
무안·신안

민주당 소속 후보 4명이 표밭을 갈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이윤석 후보가 50.6%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.

3선 무안군수 출신인 서삼석 후보는 26.2%로 그 뒤를 쫓았다. 이어 백재욱 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정책특보가 8.5%, 주태문 민주당당 민원국장이 3.7%를 얻었다.

이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에게서는 58.9%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.

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19.3%로 저조한 지지도도 보였지만 40대에선 31.6%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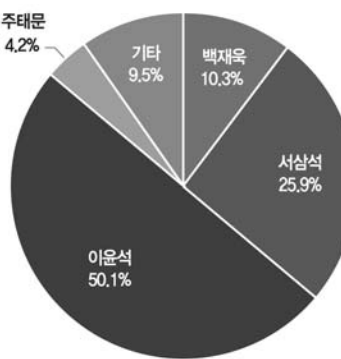
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.

무안 출신인 이 후보와 서 후보는 특히 신안에서 큰 지지를 격차를 보였다. 이 후보는 56.2%의 지지를 얻은 반면 서 후보는 17.3%에 그쳤다.

이 지역의 변수는 신안 출신인 한화갑 평민당 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 출마 여부다.

한 대표를 한때 지역구를 돌려 출마 의지를 보인 바 있으며 특히 김씨는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져 출마를 선언할 경우 선거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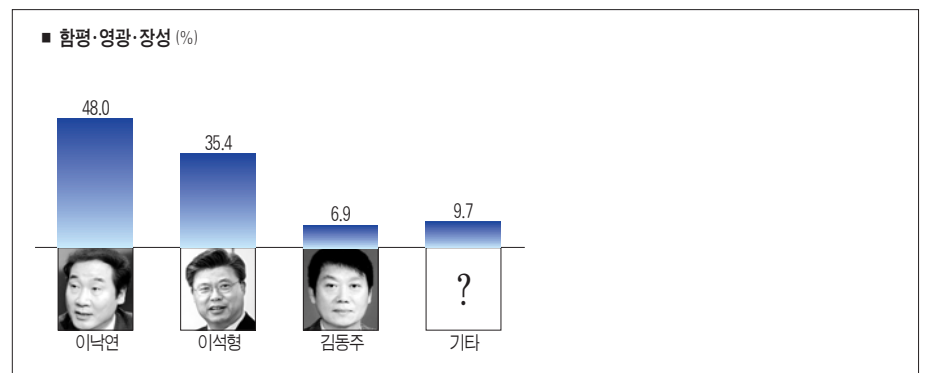
함평·영광·장성

지역에선 3선 현역인 이낙연 의원과 3선 함평군수 출신인 이석형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.

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48.0%의 지지율을 기록, 35.4%를 얻은 이석형 전 군수를 12.6%포인트 차로 앞섰다.

민주당 당내 경선 지지도에서는 이 의원이 48.8%, 이 전 군수가 39.2%를 기록해 그 격차가 9.6% 포인트 차로 줄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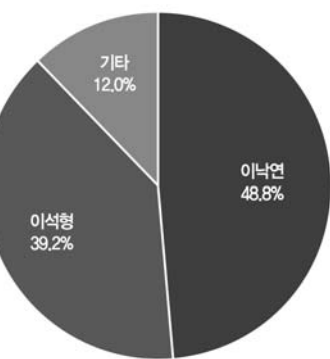
연령대별로는 이 의원은 60대 이상에서 55.6%의 지지를 받은 반면 이 전 군수는 32.1%의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.



3%이 지지를 받아 42.7%를 얻은 이 의원을 제쳤다. 이 지역구 경선은 영광 출신인 이 의원과 함평 출신인 이 전 군수가 1대1 대결을 벌이고 있어 소지역주의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.

하지만 조사 결과, 이 의원은 영광에서 51.6%대 36.5%로 이 전 군수를 압도했을 뿐 아니라 함평에서도 47.4%대 40.6%로 이 전 군수를 눌렀다.

민주당 후보 가상대결



기초단체장 보선

조충훈·이은 초점전 2파전

순천시장

노관규 전 순천시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순천시장 보궐선거는 '2강' 구도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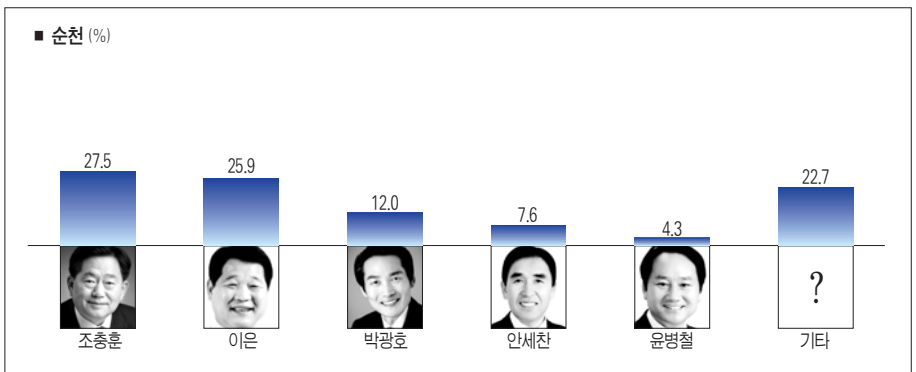
순천시장 예비후보 가상대결에서 순천시장을 지낸 조충훈 후보가 27.5%의 지지율을 기록, 25.9%를 얻은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은 후보를 1.6%포인트 앞서 오차범위(±3.1%포인트)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.

이어 순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광호 후보가 12.0%, 순천시원을 지낸 안세찬·윤병철 후보가 각각 7.6%·4.3% 등의 순위

였다. '지지후보가 없다'는 응답자는 22.7%였다.

연령대별 지지도를 보면, 조 후보(19.0%~35.1%)와 이 후보(19.1%~29.4%)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세를 보인다. 반면, 나머지 후보들은 특정 지지층이 돋보였다.

특히 초박빙의 접전이 예상되는 조 후보와 이 후보의 연령대별 지지도도 차이가 났다. 조 후보는 60세 이상(35.1%)에서, 이 후보는 50대(29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, 30대(19.0%)와 20대(19.1%)에서 각각 낮은 지지도율을 보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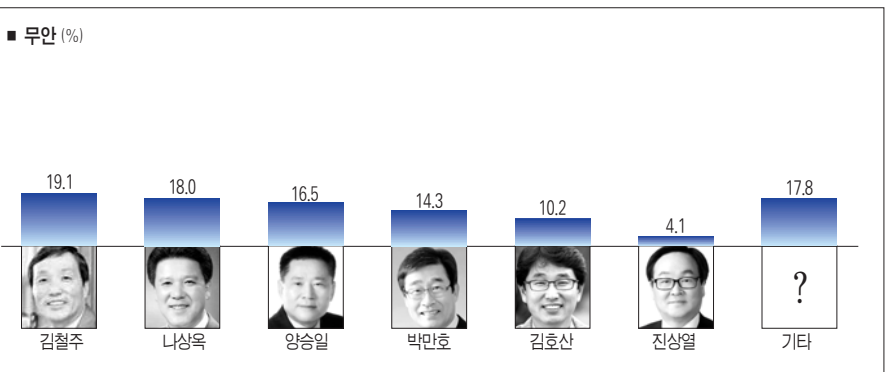
김철주·나상욱·양승일·박만호 박빙

무안군수

서삼석 군수가 4·11 총선 출마를 위해 내놓은 자리를 놓고 다수의 후보들이 초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도위원을 지낸 김철주 후보가 19.1%의 지지율로 18.0%를 차지한 목포·무안·신안총합조합장을 지낸 나상욱 후보를 1.1%포인트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.

연령대별로는 이 의원은 60대 이상(21.4%, 22.4%)에서 높은 지지도율을 얻었다. 양 후보와 박 후보는 50대(18.5%, 22.2%)에서, 김 후보는 20대(18.4%)에서, 진 후보는 60세 이상(5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다.



강진원 47.8% 압도적 1위

강진군수

황주홍 전 군수가 4·11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처리지는 강진군수 보궐선거 초반 판세는 '1강 1중 4약' 구도로 나타났다.

전남도 기업도시단장을 지낸 강진원 후보가 47.8%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. 강진농협조합장인 김근진 후보가 25.3%로 뒤를 쫓고 있다.

연령대별로 보면 강 후보는 50대(57.7%), 김 후보는 60대 이상(22.9%), 차 후보는 40대(6.8%), 박 후보와 서 후보는 50대(5.8%)와 30대(8.3%), 이 후보는 40대(6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율을 얻었다.

특히 강 후보는 민주당당 지지층으로부터 44.1%의 지지를 받았고, 김 후보는 33.0%를 얻었다.

한편, 광역체 전남도위원은 이번 여론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16일 강진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해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.

